



HANNAH CHOI MINISTRIES

## 십자가 밑의 겸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고있는 짐(십자가)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만 아는 짐이며 무게의 중량입니다. 그것은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또는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버리고 싶어도 쉽사리 버려지지 않는 버릴 수조차 없는 무게의 짐입니다. 비명을 질러봐도 내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그런 무게들을 짊어지고 아무 일 없는 듯 우리는 살아 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울다 못해 통곡하며 좌우 사방을 돌아보고 애타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각자가 짊어진 짐의 압력 때문에 알고도 손을 뻗쳐 돕지를 못합니다. 저도 제 무게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견뎌냅니다. 하지만 힘이 많이 들고 화가 날 때는 마시지 않아야 할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골다공증이 심하고 위, 신장이 좋지 않기에 커피는 금물이지만 화가 나면 꼭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 무게의 압력으로 금기된 것들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둠 속에 내민 손을 잡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손을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은 쾌락을 소개하고 쾌락은 파멸을 소개합니다. 마치 야고보서 1:15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와 같습니다. 죄가 장성함으로 사망에 묶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사53:4)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사53:5)을 예수님의 몸에 부으셨습니다. 그 분은 온 인류의 무게(사53:6)를 자신 몸에 얹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단 한사람도 죄와 허물의 무게에 쓰러져 사망과 저주의 골짜기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한발 한발 최선의 사랑, 최고의 인내, 최악의 고통(사53:7)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인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사53:10) 그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빛(요6:45) 속에서 죄에 대한 은혜로운 각성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사망과 가까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인은 구원의 빛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으로만 되어집니다(요6:44). 이제 의인(사60:21)이 된 죄인은 모든 죄짐(사53:11)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밑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사60:1). 죄인의 죄짐을 벗겨 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29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린 자녀에게 가벼운 짐을 다시 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농부가 주인인 소는 멍에를 메고 주인과 함께 논밭을 갈게 될 것입니다. 죄짐을 벗은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손에 잡혀 십자가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천국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과 순종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선한 목자의 멍에는 선합니다. 그것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짐을 져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께 오지 않은 당신과 시험에 든 당신이라면 저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